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에는 개인이 자기가 살 집의 입지를 선정하고, 목수와 상호 합의하여 집을 지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집들이 하나하나 들어차면서 마을이 생겨나고 그 사이사이를 따라 길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개인의 주거 공간을 한정하는 담과 담 사이에는 길과 공터가 있었다. 전통 주거지의 길은 큰길에서 안길이 뻗어 나가고 또 그 길에서 셋길이 뻗어 나가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길이 곧게 뻗은 것을 흉하게 여겼는데, 특히 집으로 들어오는 길은 곧바로 보이지 않도록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어야 길하다고 여겼다. 또한 집이 큰길 옆에 있는 것 역시 꺼린 탓에 전통 마을의 집은 싹둑처럼 얇힌 불규칙한 길을 따라 자연스레 자리하였다. 이런 까닭에 근대 이전의 전통 마을에는 항상 구부러지거나 꺾인 불규칙한 형태의 골목길이 존재했고, 도시를 포함한 전통 주거지의 가로 체계는 격자형(十자형)이 아닌 가지형(丁字형)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개인이 생활하는 집과 일을 하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두 공간 사이를 오가며 그곳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개인의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서 이웃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활 반경인 집 주변과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도록 구성된 공간을 ‘마을’이라 불렀던 것이다.

방에서 나오면 마당이 있고, 대문을 열면 골목길을 만나며, 길을 돌고 돌다 보면 그 동네의 중심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안을 이동하다 보면 여러 경로를 자연스럽게 거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전통의 주거 형태인 주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아파트는 한 단위 세대를 층층이 쌓아서 배치하는 적층(積層)을 기본으로 한다. 하나의 건물 내에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균일한 주거 공간이 밀집해 있고, 거기에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가 모여 사는 것이 현대의 한국식 공동 주택이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주택의 등장은 공동체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공동 주택, 즉 아파트에는 ‘사이 공간’이 없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의 현관을 통과한 후 승강기 홀이나 복도를 거쳐 각자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곳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다. 주택의 형태와 외관만 보면 모두 같은 공간에 사는 유사한 집단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 모습은 공유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9. 윗글의 주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정의 ② 분류 ③ 대조 ④ 서사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현대 도시 사회의 대표적 주거 형태에는 사이 공간이 없다.
- ② 주거 공간의 변화는 삶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③ 근대 이전의 전통 마을은 비균질적인 성격을 갖는다.
- ④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오늘날의 주거 형태를 낳았다.

11. 다음 글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과 비슷한 주장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은? [3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겨울에는 영하 10도 이하가 되기도 하고, 여름에는 30도 이상의 고온이 여러 날 지속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절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에 반해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 월별 평균 기온이 연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반팔 옷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낼 수 있다. 만일 미국 하와이 지역의 사람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2.5도라는 말만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해 일 년 내내 추운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큰 나라이다. 즉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 이를 연평균 기온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평균 기온을 알고 월별 기온 차이를 파악해야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알 수 있다.

- ① 적진을 향해 가던 군대가 강을 만났다. 강의 평균 수심은 1.4m였다. 군대를 이끌던 장수는 병사들의 평균 키가 1.65m이므로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격을 명했다. 이로 인해 물에 빠져 죽는 병사들이 생겨났다.
- ② 평균 소득은 근로자의 총소득을 근로자의 수로 나눈 것인 반면, 중위 소득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임금 근로자의 약 1,500만 개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329만 원으로 중위 소득 241만 원보다 88만 원이나 높았다.
- ③ 야구 선수 중에는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선수도 있고 그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도 있다.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을 받는 선수들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 있다.
- ④ 시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로 ‘최대 50% 할인!’과 같은 것이 있다. 여기에서 ‘최대’란 말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소비자들에게 잘 팔리지 않거나 미끼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최대’라는 표현과 함께 많은 할인율을 광고하는 것이 생리이다.

12. 아동 출입 금지 식당에 반대하는 글을 쓰기 위한 설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예상 독자들은 아동 출입 금지 식당에 관심이 없거나 그 문제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 ② 최우선 해결 방안으로 유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③ 글을 발표할 매체는 주로 교내 문제를 다루는 학교 신문보다는 포털 사이트에 있는 독자 게시판을 이용하기로 했다.
- ④ 주제를 ‘식당의 아동 출입 금지 방침에 반대한다.’로 정했다.

13. 다음 글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부른다. 공공재의 또 다른 예로는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공재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 시장에서는 그것을 취급하기 어렵다. 예컨대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은 한 사람당 연간 5백만 원만 내면 철통 방위를 약속한다는 신문 광고도 냈다. 과연 국민들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까? 국민들은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외적으로부터 지켜 줄 수 없다는 점을 알기에 굳이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①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 ② 서비스가 선택적으로 제공된다.
- ③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
- ④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극히 적다.

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면을 한 번 튀겨서 익혔다는 것이다. 그래서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컵라면은 지속적으로 끓일 필요도 없고 단지 끓는 물을 붓기만 해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3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1분 만에, 아니 끓는 물을 붓자마자 먹을 수 있으면 좀 좋아?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컵라면 면발에는 화학적 비밀이 있다. 봉지 라면과 비교했을 때 컵라면 면발에는 밀가루 그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 전분을 알파화한 것이다. 하지만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들어 있다. 면에 이런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알파화가 많이 일어나므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복원되는 시간도 빨라진다. 전분을 많이 넣을수록 면이 불어나는 시간이 빨라져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분이 아니라 1분 만에 익는 컵라면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면발이 익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불어 터지는 속도도 빨라져 컵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곤죽이 되고 만다. 시중에 나와 있는 컵라면들이 대부분 ‘끓는 물에 3분’을 기다리도록 제조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컵라면의 ‘3분’은 절묘한 균형 감각 하에 탄생한 마법의 시간인 셈이다.

- ① 라면의 진화
- ② 라면 끓이는 법
- ③ 라면의 미학
- ④ 라면의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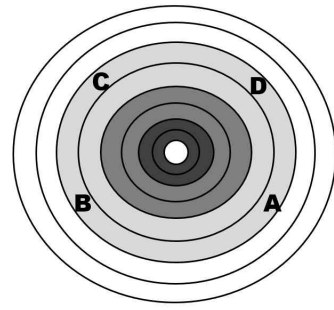
15.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기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양궁 선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대회가 열리는 실외 경기장에서 부는 변화무쌍한 바람이다. 바람의 세기나 방향이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궁 선수들은 바람에 대비하여 평소 오조준 연습을 한다. 오조준이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과녁에서 원래 목표 지점이 아닌 곳을 임시로 정하여 그곳에 화살을 쏘는 것을 말한다. 화살을 의도적으로 오조준하여 바람의 영향을 받은 화살이 과녁의 중앙에 가서 꽂히게 하는 것이다.

오조준을 할 때 선수들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여 화살을 쏜다. 아래 그림은 오조준을 할 때 선수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과녁이다.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서 또한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경우에는 목표 지점을 ㉠()에 맞추어 쏘아야 정가운데를 맞출 수 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97년 톰슨은 음전하를 가진 전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속에는 양전하를 가진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원자의 구성 요소이면서 양전하를 가진 존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톰슨은 마치 쿠키 속에 박힌 건포도처럼, 원자 내부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 양전하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박혀 있다는 원자 모형을 주장하였다.

그의 제자 러더퍼드는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중 알파선을 이용해 톰슨의 원자 모형을 검증했다. 그는 금으로 된 얇은 막에 알파선을 충돌시켰다. 알파선은 전자보다 더 무거우므로 톰슨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알파선이 전자와 충돌하더라도 거의 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달랐다. 대부분의 알파선은 휘어지지 않고 직진했지만, 몇 개는 전자와 충돌했다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각도로 휘어져 나왔다. 그는 알파선이 큰 각도로 휘어지려면 원자 속의 양전하가 아주 작은 부피 속에 모여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911년 러더퍼드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가정하기 시작했다. 양전하가 원자 중심부의 좁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음전하, 즉 전자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만약 전자들이 ㉠톰슨 원자 모형처럼 이곳저곳에 분포되어 있다면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전기

20. 윗글 뒤에 ‘진로 선택’과 관련한 내용을 쓴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한 분야에 갇히지 말고 끊임없이 다양한 직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② 시대 변화에 맞게 모든 사람이 과학 지식을 익혀야 한다.
- ③ 가급적 빨리 진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 ④ 구체적인 직업 선택을 최대한 늦추고 실용 학문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름다운 산책은 우체국에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가는 편지는
 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했지요
 그건 ㉡발효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는 편지와 받아 볼 편지는
 우리들 사이에 ㉢푸른 가을을 흐르게 했지요

그대가 가고 난 뒤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체국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체통을 굳이 빨간색으로 칠한 까닭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 이문재, 「푸른곰팡이-산책 시 1」

21.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시각적 심상을 대비적으로 활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개성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존대법을 활용하여 연장자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우체통의 색상에 착안하여 경고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2.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푸른곰팡이’라는 제목이 ‘발효’라는 표현과 연계되어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준다.
- ② 이메일의 송수신을 강의 흐름에 비유하여 나와 그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와 그대와의 만남이 끝난 이유는 인근의 우체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④ 시의 화자는 그대를 짝사랑하기 때문에 사나흘에 한 번씩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은 우체국을 대하는 화자의 마음을 압축하고 있다.
- ② ㉡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시간적 거리에서 비롯된다.
- ③ ㉢은 푸른색의 이미지로 편지를 통한 교감을 비유하고 있다.
- ④ ㉣은 그대와의 이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 이곳까지 굳이 산책을 나온 건, 그 애에게 건넬 말을 궁리하기 위해서였다.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이지났지만, 아직 답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 일단 회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쓴다 해도 뭐라 하나 몰라 서였다. 물론 답장을 쓰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그 편지를 ‘잘 쓰려’ 한다는 거였다.

㉠‘하지만 표가 나서는 안 돼……’

나는 그 애에게 때 이른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다. 끄덕이고 안도한 뒤 자책해 돌아서 버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바란 것 이상으로 그 애를 기쁘게 해 주고 싶었다.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되니까, ‘아!’ 하는 순간의 탄성이 만들어 내는 반향을 타고, 그 반향이 일으키는 가을 물결을 타고, 그 애가 내게 쓸려 오길 바랐다.

㉡‘하지만 어떻게?’

그러자 지금까지 쓴 형편없는 메모들이 떠올랐다. 힘이 잔뜩 들어간 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황해지는 내용들이었다.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데다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하고, 보는 즉시 ‘어우’ 손사래 쳤던 글을 내가 쓰고 있었다. 그것도 문체가 제각각인 게 어느 것은 도도한 초등학교생이 쓴 산문 같고, 또 어떤 것은 인문대 복학생이 쓴 잠문 같았다. 이걸 뭐 공작도 아니고, 수컷들 깃털 자랑하듯 구애하는 모양새라니. 가장 평범한 소년이 되어 가장 평범한 고민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낯설고 불편했다.

㉢‘역시……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런가?’

누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에게 “내 말 속엔 노인과 야쿠자와 여고생의 말투가 다 섞여 있다.” 라고 촌평한 걸 듣고 깔깔대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딱 그거 같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여러 가지 욕망이 섞여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한단 말인가? 그래도 정말 괜찮단 말인가? 나처럼 괜찮은 아이가? 나는 수심에 잠겨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수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이서하……”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 발음하는 세 글자였다. 그러자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에 얹혀 있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가슴 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었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거나 한 듯, 찌렁 찌렁 적막이 울려 퍼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의 열세 계급 중 0계급에 속한다는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 보았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척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 냈다. 신기한 일이었다. 0계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0계급이 무언가 하고 있었다.

㉣‘일단 첫 문장을 써야 해, 첫 문장을…… 그런 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나는 허공에다 대고 ‘안녕’이란 말을 써 보았다. 하지만 웬지 마음에 들지 않아 소매 끝으로 쓱쓱 지웠다. ‘잘 지내니’라는 말도, ‘반가워’라는 말도 마찬가지로였다. 한 소년의 팔십 먹은

폐와 심장, 혈관을 타고 바깥으로 흘러나온 한숨이 대기를 흐렸다. 나는 김 서린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 뿌옇게 변한 창나의 공기 속에 다시 그 애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러자 하늘 위로 생똥맞은 문장이 영화 자막처럼 돌아났다.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
 어디선가 빼격 하고 낡은 풍판(風板)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활자를 한 자 한 자 따라 읽었다.
 -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2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인칭 서술자의 내적 독백을 중심으로 편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산책을 나온 이유는 편지의 회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 ③ 연애를 글로 배웠기 때문에 감정이 어색하게 전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④ 첫 문장을 쓰고 나면 다음 문장이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5. 밑글에 대한 감상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서술자는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심하고 있다.
- ② 서술자는 수신자로부터 회신을 독촉하는 이메일이 다시 오기 전에 답신을 보내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 ③ 서술자는 이메일로 답신을 보내기보다는 우체국을 통해 편지로 자신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다.
- ④ 서술자는 이서하를 발송하면서 고요한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는 과정을 평범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에서는 편지를 잘 쓰고 싶지만 자신의 감정이 손쉽게 겉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수신자가 편지를 받으면 만족을 넘어 감탄을 받을 수 있도록 쓰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과거 연애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 구애에 대한 욕망이 겉으로 드러날까 봐 걱정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첫 문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첫 문장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는 심경을 보여주고 있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번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짖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나]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황인숙, 「봄눈 오는 밤」

2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화자와 시적 대상과의 거리가 객관적으로 가깝다.
- ② 추운 겨울의 서늘한 감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③ 유사한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춘설에 대한 공감각적 묘사가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28.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눈 내리는 숲속에서 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나무들의 생생한 표정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 보고 있다.
- ③ 다양한 문장 부호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감탄하고 있다.
- ④ 어문 규범에서 벗어난 표현이 시적 효과를 반감시킨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은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를 촉각적 심상으로 보여준다.
- ② ㉡은 두터운 옷을 껴입은 채로 봄날을 거부하는 마음이다.
- ③ ㉢은 마른풀들을 의인화하여 눈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봄눈을 음미하는 나무들의 모습을 의인화하고 있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에게는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남몰래 부름 직한 앉은뱅이 탁자가 하나 있다. 노트 한 권을 올려놓으면 꼭 차 버리는 아주 작고 둥근 탁자인데, 나는 그걸 마루 한구석에 놓아두고 그 앞에 가 앉고는 한다.

모처럼 혼자 오롯하게 있는 날, 나는 무슨 의식이라도 준비하는 사람처럼 실내의 전등을 다 끄고 별이 가장 잘 들어오는 창문 쪽을 향해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는다. 그러고는 두 손을 깨끗이 씻고 차 한 잔을 그 옆에 내려놓고 앉는다. 그렇게 테이블 위에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아니면 그저 멍하게 앉아 있노라면 ㉠마음의 사나운 기운도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것이다. 어쩌면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그 순간을 위해 나머지 시간들을 소란스러움 속에서 살아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 테이블을 인도 여행 중 어느 토산품 점에서 샀다. 직접 손으로 깎아서 만든 공예품들을 파는 집이었는데, 그 테이블을 보는 순간 나는 바솔라르의 존재의 테이블을 떠올렸다. 그는 추운 겨울날 불기 없는 방에서 겨울 코트를 포개 입고 책을 읽곤 했는데, 그 ㉡즐거운 독서와 몽상이 이루어지던 테이블을 ‘작업용 테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불렀다. 그 테이블에 앉는 순간만큼은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것이다. (중략)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솔라르를 흉내 내려는 치기에서가 아니다. 아마도 그가 이론 업적이거나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 내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샀다. 다리는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는 작은 꽃문양을 새겨 넣은 테이블이었다.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에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행복함은 차차 후회로 변해 갔다.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느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 것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를 나는 왜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러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에서였을 것이다.

이런 ㉣쓸쓸한 자부심이 그 테이블에는 깃들여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테이블’을 인도에서 한국 땅까지 끌고 와서 집 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도록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새겨진 꽃문양 사이사이로 먼지가 끼어 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 같거나 생각할 때도 많았다. 그토록 애착을 느꼈으면서도 어느 순간 잠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삐걱거리게 된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고는 한다.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겨서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어 버리는 일상 속에서 그 앞에 앉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느라,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에 진절머리를 치느라 그 앞에 가 앉지 못했다.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그 삐걱거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추어 주는 거울. 그리고 힘든 일이 닦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작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일러 주는 거울.

그렇게 잘 닦고 나면 다시 그 앞에 앉을 엄두도 나는 것이다. 별이 잘 드는 창문 쪽으로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두 손을 씻고……. 이렇게 누추한 생활에서 간신히 스스로를 건져 올려 그 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 드문 순간들에야 비로소 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렵풋하게나마 느끼게 된다.

- 나희덕, 「존재의 테이블」

3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서술자가 탁자를 구입한 경험과 함께 실제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
 - ② 프랑스 철학자와 비슷한 탁자를 구매하기 위해 일부러 인도 여행을 기획한 사실이 드러난다.
 - ③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존재의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다.
 - ④ 서술자는 즐거운 독서와 몽상을 하면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3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 저자가 ‘존재의 테이블’에 앉기 위해 일부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② ㉡은 넉넉한 경제적 지원 속에서 학문에 몰두했던 낙천적인 철학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 ③ ㉢은 ‘존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집착을 보인 자신에 대한 반성을 보여준다.
 - ④ ㉣은 큰 집에서 ‘존재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기 위한 자존감을 보여준다.
32. ㉤에 활용된 비유법이 활용된 시 구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헤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 ②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태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③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④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33~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하기는 했으나
 내가 다 커서거나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엘 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 신경림, 「다시 느티나무가」

33.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성찰적인 어조로 느티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대상에 대한 심미적 판단을 달리고 있다.
- ④ 느티나무의 크고 작음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4.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화자가 탈향 이후 느티나무 아래에서의 이별을 회상하며 회한에 젖어 들고 있다.
- ② 화자가 심신이 늙고 병약해지고 나서야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욱 실감하게 된 셈이다.
- ③ 세상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젊어서 고생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해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 ④ 화자는 커다란 느티나무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뺨이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여자들끼리의 사교적인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채 멍하게 앉아 있는 아내를, 그녀를 흘끔 거리는 시선들을 의식하며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만이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았다.

“찾아오는 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장 부인이 나에게 물었다.

“예전에 지나 본 적이 있습니다. 앞마당이 좋아서 한번 들어와 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정원이 참 잘 돼 있죠. 낮에 오면 더 좋아요. 저 창문으로 화단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내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팽팽한 노력의 끈은 끊어졌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 썬 목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더러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 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자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게가 않아요.”

“요샌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 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 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아까부터 아내의 가슴을 흘끔거리고 있던 전무 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꿈을 꿴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끝을 덮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